

주간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3
Mar. 2016
Vol.4 No.3

- 주안에 만남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여전도회 남선교회
- 교육부 / 간증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십자가 은혜, 내 마음에 눈물 마르지 않기를...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3월 2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막이 올랐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이번에 맞는 고난주간의 의미는 유난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매주 선포 되는 씨와 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가 시딤밭 같고, 길가밭 같은, 돌쪼발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혁 담임목사는 "그 예수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할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통곡의 지점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꼭 이 지점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난주간에 틀림없이 만나게 되는 영상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로 채찍에 맞고 찢기고 온통 핏빛으로 물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데....

해를 거듭하며 같은 장면을 보며 눈물없이 보게 되는 내가 될까 두려워진다.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이 얻는 영광에 속지 않고 길되고 빛되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어떠한 위협과 타협에도 흔들림 없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한 분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 오병순 기자 |



은혜의
강단

최혁 담임목사

‘그 예수를 부인하라’

(고난주간 설교 중/ 마태 26:69~75)

베드로는 3년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지혜, 그 메시지, 그 리더십, 그 이적을 바라보고 그가 대망하던 메시아로 굳게 믿었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당신만을 따라 가리라 맹세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투자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저분만 따라 다니면 불가능 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지혜도 지식도 초월하신 어떤 능력자이신 예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당하고 또 그렇게 무기력한 그 분을 보고, 그 시점에 서있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던 그는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인생에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그 시점에 있다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 그 시점에서 세 번이나 확실히 예수를 부인 할뿐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그 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찬 눈. 원망이나 배신에 치를 떠는 모습이 아닌 그 맹세를 비웃는 그 눈길이 아닌, 연민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눈길. 그는 그런 예수님의 참사랑에 통곡한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의 시점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구세주, 하나님... 우리의 바른 신앙과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시점, 즉 통곡의 시점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고 우리도 그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물리적인 마시는 물을 생각합니다. 즉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세상 물질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하니라(마 26:75)."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내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느꼈고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고 세 번 닭이 울고야 그 사실을 알고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기복신앙...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도 거기에서 머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십년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리시고 죄에 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 요약: 김용수 장로 |

■ 목회 뉴스

EM 예배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안교회 EM예배를 준비하며...

■ 이니콜 전도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와 말씀을 통한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는 주안교회의 목회비전이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에게까지 동일하게 연결되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훈련 기준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부르심을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기초부터 잘 다지며 세워질 때 그 다음의 귀한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앞에 드릴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양육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공급을, 건강한 관계형성을, 영성있는 리더십 훈련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청년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을 그려보고 기대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현실화되기를 기도합니다.

■ 강슬로몬 전도사: 현재 중고등부에서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바로 영어권 대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불가피하게 본인들의 시간과 체력과 관심을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사용하다보니

정작 자신

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다소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EM 예배의 새로운 도약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참석하는 예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깨어지며 영적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자리와 시간을 귀하고 무겁게 여기게 되며 나아가 삶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또한 섬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더 성숙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 EM 첫 예배 4/17(주일) 2:30pm, LA Chapel



New Service Hours

예.배.시.간 변경안내

[4/3(주일)부터 주일예배시간이변경됩니다.]

밸 리 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1부 8:45am / 2부 11:45am

LA 채플 LA Chapel
주일예배 1부 8:45am / 2부 10:30am
3/28(월)-4/1(금) 까지 LA예배처소
새벽예배와 수요요람데오예배가 없습니다.

플 러 트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예배 1부 9:15am / 2부 11:45am

■ LA채플 공사

월서가 빌딩 숲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LA채플이 계약을 마치고 드디어 내부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1일 LA예배처소에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최혁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인 30여명이 새 성전에 모여 아름답게 성전을 꾸밀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최혁 목사는 말씀(출35:30-36:2)을 통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를 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주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교인들에게 공사를 책임진

최형선 집사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하고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함께한 성도들은 이제 3주 후부터는 LA채플이 문을 활짝 열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기도하고, 최혁 목사님이 사주시는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모두 발길을 옮겼다. | 이광영 기자 |

● LA채플 이전감사예배: 4/3(주일) 8:45am, 10:30am | 주소: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음향, 영상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배환경 개선

■ 밸리채플

지난 몇주동안 밸리채플에서는 음향 및 영상시스템 교체작업이 진행되었다.

교회의 전력사용량에 맞지 않은 일반 배선공사로 인해 발생하던 원형거리는 소음을 "클린 파워"라는 배선방식을 바꿈으로 설교말씀에 깔려 나오던 소음이 사라지고, 또 오철호 집사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방음공사를 철저히 함으로 강통에서 울리던 것 같은 소리가 사라지고 더욱 깨끗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가대를 위한 영상, 음향시스템이 보충되어 천군 천사만큼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더욱 실감나게 들으며 은혜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조성호 집사를 중심으로 음향시스템을 새롭게 교체, 충분한 출력을 통하여 단 위에 세워놓았던 스피커들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듭나고 성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맑고 고운 설교소리를 듣게 되었다.

공사에 일체 참여했던 김경배 미디어국장은 힘든 가운데서도 시종 미소를 잃지 않고 늘 감사 감사를 표시했다. 앞으로 허락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정도영 장로를 주축으로 김경배, 조성호, 오철호, 이중희 집사 및 김호은 집사가 수고해 주었고 김준억 장로가 자원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성도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환



경을 위해 생계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뛰고 달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좀 더 좋은 음향으로 더 현실감 나는 고화질 화면으로 예배에 도움을 주고자 지갑을 열고 시간을 투자하

고 있었다. 아울러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귀한 말씀을 받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만들어낸 것이 영상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과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 나와 같은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생각이 이에 미친다면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싶다.

나는 좀 불편하지만 더욱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마켓으로 거리로 전도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 그 정도 자리는 내어줄 준비를 했으면 한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 만남(밸리채플)

마음 다한 환영, 서머한 분위기 금방 '화기애애'



지난 2월 28일(주일) 제 7차 주안에 만남이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은 6시가 좀 넘어 끝을 맺었다.

새가족 24명 새가족봉사팀 15명전원 및 교역자 5명에 숨어서 돕는 손길 3명까지 새가족 한명에 봉사자 1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진 따뜻한 자리였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한복음 14:10)

주안에교회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곁고 이제 새식구가 되기로 마음 먹은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주안에 함께 걸어가길 작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장로님들의 봉사와 여러 이름없이 봉사하는 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이전보다 많지 않은 참석인원으로 다시 좁은 공간에서 치러졌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이전보다 더욱 간절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목사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꼭 사춘기 소녀감성으로 서머하지만 설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연이어 있었던 담임목사님의 교회 비전과 목회철학을 나눌 때에는 사뭇 진지하게 서로의 나아갈 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모든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에는 시작과 달리 새가족들도 함께 손을 보태 일사분란하지만 함께 함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다음 회차에는 아이들을 돌보아줄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도움 손길이 더 있어야 한다는 자채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을 프로그램이지만 여러가지 형편으로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인원이 이전보다 많지 않아 넓은 공간을 피하고 다소 협소한 공간을 택해야 했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이보다 더 탄탄하리라 다짐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 채은영 기자 |



■ 코람데오청년부 주안에만남

주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들 "꿈과 사랑 함께"



3월 13일 주일, 코람데오 청년부의 주안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청년부는 일년에 두번 정도 주안에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올해 처음이자, 엘에이 예배처소에 오고 나서 처음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리토스와 밸리채플에 따로 다니던 코람데오 청년들이 이제 엘에이 예배처소에 함께 모이다 보니 이번 주안에 만남은 평소와는 다르게 새가족들 뿐 아니라 모든 코람데오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새가족들과 코람데오 모든 청년들을 포함해서 51명이 참석했으며 그 가운데 16명이 주안에 만남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코람데오 새가족팀의 주도로 1부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먼저 이동해서 풍선들과 테이블용 장식, 개인 테이블 이름표와 간식 등을 준비하고 새가족 및 코람데오 청년들을 환영하고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명씩 각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한 평의원 및 주안예교회 소개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방침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사진

을 찍는 시간, 그리고 간단한 게임들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안에 만남에 처음 참석한 청년들은 일어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많은 청년 새가족들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코람데오 청년 혹은 교인분들과의 친분으로 주안예교회를 알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새가족 이효인 자매는 "아무래도 교회를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주변을 서성이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정말 가족처럼 잘 챙겨 주셨다.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분위기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임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시간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나이드, 사는 곳도, 주안예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안에 교회의 방향과 계획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혜민 새가족 팀장 |

■ 세례/성찬식

예수님 고난 기념
뜨겁게 믿음 고백

2016년 부활절을 앞두고 주안예교회 세례식(3/16~18)과 성찬식(3/25)이 2군데 채플과 LA 예배처소에서 있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또한 옛사람(죄)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이끌어 주는 예식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선택이며, 특히 입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며 주님과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숙한 예식입니다.

세례자들이 세례식을 통해 받은 코끝으로부터 찢히게 밀려오는 감동과 눈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만의 거듭남의 경험이며 또 일반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그려보는 신선



한 도전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3월 16일~18일에 각각 3명의 주안예교회 유아세례식과 2명의 입교식이 있었음을 알리고 저들을 온 성도들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김신실 기자 |

▶ 김지선 성도(송루나양 어머니): 불임관정을 받았던 저에게 이번에 4번째 아이의 유아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같은 일들을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축하해 주신 우리 주안예교회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 윤유빈 성도: 부모님의 믿음에서 나 자신의 믿음으로 입교자가 되고 보니 옛날의 나는 죽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로 부활한 기분입니다. 아직 옛 죄와 싸우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 유아세례자 플러튼채플: 최루나-최종관/정지현 집사의 딸(01/25/2014생), 송루나-송태일/김지선 집사의 딸(08/10/2014생), 임현수-임현석/이현정B 집사의 아들(08/19/2015생)

● 입교자 LA채플: 이세연(한여청년부), 밸리채플: Daniel Yoon(윤유빈)

■ 여전도회, 남선교회 발족

선교와 전도사역에 중추역할 감당 다짐

주안예교회가 설립 3년차를 맞이하여 점점 안정되고 또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LA와 벨리, 그리고 플러튼 등 3개 채플에서 각각 발족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선교와 전도는 물론이고 기도와 봉사에 힘을 다짐하고, 특히 교회의 많은 행사에 요청이 있을지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막 힘차게 출발하는 각 선교교회와 전도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안경숙 기자 |



■ 회장단 소감 및 각오 ■



이필주 장로(벨리채플 남선교회 회장)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안예교회,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2016년도 남선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전과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윤종화 장로(엘에이채플 남선교회 회장)
LA 채플에 처음 조직된 남선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늘 겸손한 자세로 헌신에 앞장서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몸소 실천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영기 장로(플러튼채플 남선교회 회장)
먼저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저를 플러튼 남선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처음 시작인만큼

모든 것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 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헌신과 희생하는 정신으로 교회 안팎을 함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본이 되고, 덕과 은혜를 끼치며 이해하며 배려하면서 선한창치기로 봉사하는 플러튼 주안예교회 남선교회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은 권사(벨리채플 여전도회 회장)
주안예교회에 여전도회를 통하여 모든 여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에게 직분 주셨는데 송구한 마음으로 주께서 앞서 인도하실 줄 믿고 최선과 충성으로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여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와 봉사로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주의 여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모든 여성도님들 주안에 서 화이팅!!



김정혜 권사(엘에이채플 여전도회 회장)
LA채플에 여전도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언젠는 달려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LA채플 모든 여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을 모아 봉사하고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예스터 권사(플러튼채플 여전도회 회장)
이 땅에서 어떤 사려도 찾아볼 수 없는 주안예교회의 세워짐을 지켜보다 여전도회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안예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해서 오늘도 엎드립니다.

낮선 얼굴들이 사방에서 모여와 한 지체를 이루려고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고 서로 만나서 얼굴을 익힐 기회가 없어서 플러튼채플은 여전히 낯선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 깨어있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의 유기체가 되도록 서로 돌보며, 회원간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온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믿으면서 발을 조심스럽게 땡니다.



■ 차량국(LA채플)

■ 미디어국(플러튼채플)

알파와 오메가 되어

LA 예배처소의 차량국은 국장으로 오찬국 집사, 팀장에 배석원 장로가 수고하고 계시는데 주일예배뿐 아니라 수요요람데오 예배와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차량정리와 주차장 안내를 하고 계신다.

흔히 우리가 “집 나오면 고생”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LA 예배처소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넓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방향만 알려드리면 교인들이 각자 적당한 위치에 주차할 정도였는데 LA 예배처소에는 10대 정도 주차할 면적에 30~40대를 주차해야 하니까 한대마다 위치까지 지정하고 유도해야하므로 두분이 수고가 너무나 많은 형편이다.



주일에는 몇블럭 떨어진 곳에 교인들이 주차하고 3~5명씩 매번 교회로 이동하는 셔틀밴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제 LA채플이 월서와 놀만디 코너에 장소를 확정하

고 밤낮으로 내부수리 및 분당 시설공사가 진행되어 4월 첫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곳은 큰 빌딩이라 몇 백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으므로 다중주차하는 수고는 덜게 되었다. 오찬국 국장에 의하면 LA일원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인들을 도울 계획이라 한다.

국장과 팀장 두분이 너무하다 싶게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차량국이라 이제 봉사자도 인원이 더 늘어나고 교인들이 불편없이 교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과 준비에 큰 향상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차량국에서 함께 협력하는 봉사자들과 오찬국 국장과 배석원 팀장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차량국이 되길 기도한다.

주일예배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출석하여 현장 정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고하여 알파와 오메가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LA 예배처소 차량국에 많은 향상이 있길 바라며 교인 모두의 협력을 다짐한다.

| 나형철 기자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그림자처럼 봉사

주안예교회가 개척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역국이 바로 예배당 뒷편 구석에서 조용히 사역을 감당하는 플러튼채플 미디어국이다.

미디어국 부스가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보니 일명 “어두운 곳”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그 자리는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미디어국 팀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한 곳이다.

미디어국은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플러튼채플 공사현장에도 밤낮으로 동참하며 교회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돌보았다.

3개 채플의 미디어국 담당사역자로는 은종인 간사가 섬기고 있으며, 국장으로는 장경출 집사, 팀장으로는 박상욱 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사역국의 구성은 설교영상 촬영 및 재생, 자막, 음향, 조명이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팀원이 있다.

철저한 교육과 반복적인 기술 습득으로 모든 팀원의 실력 평준화를 시켜 비상시를 대비하고,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어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특별히 설교영상 촬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제없이 영상이 재생되도록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다.

담당사역자인 은종인 간사는 “단단한 팀워크와 예배의 사모함으로 뭉친 플러튼 미디어국은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라며 미디어팀의 사명을 밝혔고, 2년째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경출 집사는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슴졸이는 상황들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전문인이 준전문가들이 되었고 각자가 한 파트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년은 기도하며 방송 무사고 일년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음향을 담당하는 박상욱 팀장은 “다우니 채플에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음향기기를 풀어서 설치하고 예배 후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무사히 예배를 마치게 해 달라고 드렸던 기도가 감사기도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러튼채플을 준비해주시는 과정을 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영상 재생을 담당하는 박영만 집사는 “미디어팀원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미디어팀 화이팅!!”이라고 전했고, 자막으로 봉사하는 정소연 집사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라며 미디어국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영상촬영을 담당하는 이우석 집사는 “플러튼 미디어팀은 디즈니랜드와 어드벤처보다 즐거움이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팀입니다.”라며 재치있는 삼행시를 지어 주셨고, 최근에 자막 봉사자로 조인한 최철훈 집사는 “미디어팀에 봉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플러튼 미디어국은 주안예교회 원보이스의 기도제목처럼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설교말씀이 전세대로 전해지길 소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미디어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OTHER WISE

마더와이즈



● **마더와이즈란?** 마더와이즈란 어머니들을 위한 사역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머니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훈련시키고, 자녀양육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은 실제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어머니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기본적으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부모역할에 대한 성경적, 실제적 답변을 찾고자 할 때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출처: www.motherwise.or.kr)

● **주안교회 마더와이즈 시작 계기:** 2014년 3월 벨리채플 교육부 EIKON(특별활동)을 시작하며 아이들을 맡기고 기다리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엄마들의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훈련진행:** 벨리채플 첫번째 마더와이즈 팀은 EIKON의 스케줄에 맞춰 1년에 두 학기로(봄, 여름) 두 권의 책(지혜, 자유) 끝났고 2015년 봄학기로 마지막 세 번째 책(회복) 끝났습니다. 6명의 집사님들이 세권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플러튼채플에서 2015년 봄학기 4명의 집사님들로 '지혜' 책을 시작하여 마치고 자유책을 2016년 1월 6일 시작하여 지난 3월 9일 마쳤습니다. 벨리채플에서는 2016년 2월 9일에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4명의 집사님들로 '지혜' 책을 시작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희정 기자 |

■ 마더와이즈

나를 변화시켜 온가정에 행복감이

제가 신앙 생활 한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식구들이 다니니까 그냥 따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주님께 열정 적이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그냥 다녔습니다.

주안에교회에 온지 2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위에서 말씀 공부 하자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한번도 성경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망설여 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쉽게 이해하고 또 제가 거부 할 수 없는 엄마라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같이 공부하자고 했을 때 많이 망설여 졌지만 제게 처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에 들어서 "말씀 공부 안해도 나는 엄마, 아내 역할 잘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을 내서 공부 해야 돼"라는 갈등이 생겼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마더 와이즈 공부한지 한달이 넘은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오만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얼마나 잘 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으로 인해 애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큰 애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애를 닮하기 전에 제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관계가 조금은 가까워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정은 제 위주로 해 나가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마더 와이즈를 공부하고 나서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심히 마음이 불편해서 "왜 내가 밑에 가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노력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바뀌어서 가정이 행복하다면 한번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할려고 하니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 내 마음이 편했고 남편이 행복해 했습니다.

앞으로도 2권의 책이 더 남았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을지 기대되고 그 말씀을 다 배우고 난 후의 저의 모습도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강은숙 집사
(벨리채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으로 회복

작년 봄에 마더와이즈 '지혜' 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 중에 우리 가정에 바로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내가 왜?' 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여자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고, 여자들도 똑같이 교육받고, 일하고, 집안에서도 여자 목소리가 더 커도 되는 것처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니스 글렌의 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여자를 돕는 베필로 두시며, 부부가 하나되게 하시는 그런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되는 가정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처럼 더욱 하나되고, 더욱 사랑하는 가정을 연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책은 저자인 드니스 글렌의 개인적인 간증들과 더불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하는 워크북 형식입니다.

지난 10주동안 '자유' 편을 공부하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와 썰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 죄를 이해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통해 나를 깨끗이 해야 하며,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좋은 엄마, 아내, 친구, 이웃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9면에 계속>



류명수 집사
(플러튼채플)

■ 교육부 소식(밸리채플)

■ 교역자 칼럼



"예수님의 십자가 동심 속 아로새겨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려는 교육부 아이들 방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바쁜 주일을 보내고 있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아무 죄 없는 그 분은 단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영상과 함께 듣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은 숙연해졌고 슬퍼 보였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수 없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사실이 지난 주일엔 아이들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역력히 새겨진 듯 보였다.

말씀을 듣고 난 후, 아이들은 각 반별로 모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매일 하나씩 실행해 보기로 하고 커다란 포스터에 가위로 오리고 붙여가며 "Journey to the Cross" 주 5일 계획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Day 1 에는 좋아하는 컴퓨터나 게임 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책 읽기, Day 2 에는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가족을 위해 예수님께 기

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등,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의 크기를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처한 그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순수한,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절실함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려고 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순간 가슴속에 확연히 박혀 진실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가슴설레게 맞이하며 우리 아이들은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 박희정 기자 |



〈8면서 계속/ 류명수 집사 간증〉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조건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묵상과 기도의 호흡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배운 점이 있다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매로 다스려서 바른 길로 훈육해야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실 지혜를 구하며, 좋은 어머니,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기

를 기도합니다.

그룹리더로 맛있는 커피로 섬겨주신 이정아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룹에서 함께 공부한 자매들과 서로에게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가며 함께 기도해주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나누었기에 은혜도 깨달음도 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둔 엄마들에게 이 책을 공부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FATHER WISE도 있다고 하는데, 아빠들도 함께 공부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공동체를 잘 섬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 육신

이현욱 목사



파라과이에는 '이타이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돌이라는 의미의 '이타'와 노래라는 의미의 '이푸'가 합쳐져서 '돌이 노래한다'는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지역 파라나 강 가운데 돌섬들이 있었는데, 물소리 때문에 돌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물이 힘차게 흐르는 곳에 이타이푸 댐이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때 고도성장을 이루던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전력 공급에 부족함을 느꼈고, 전력 공급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파라과이와 브라질 접경에 이타이푸 댐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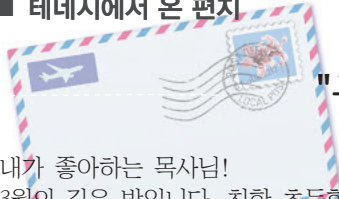
이타이푸 댐의 낙차는 196m이며, 최대 가능한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000mw(메가와트)로, 브라질 전력수요의 25%, 파라과의 전체 전력의 80%를 담당한다고 하니, 가히 엄청난 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타이푸 댐은 수력발전이라는 원리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수력발전이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전기에너지 형태로 만들어 전기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력 발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에너지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낳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생명의 에너지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생명 에너지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려오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큰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말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낸 우리도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테네시에서 온 편지



"목사님 말씀 CD 듣고 또 듣고 이젠 외울 정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3월의 깊은 밤입니다. 친한 초등학교 동창생이 보내준, 오래 오래된 밀초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병어리 되어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가슴으로는 말을 하고 머리로는 생각하여 지는데 왜 입은 열리지 아니하고 소리는 낼 수 없는가요? 오늘... 용기를 내서 미루어오던 목사님에게 편을 잡았습니다.

첫사랑 편지를 쓰는 마음처럼 떨리고 가슴에서 쿵쿵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의 사랑은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더 못주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Wife도, 자식도, 첫사랑도, 목숨 건 사랑은 단 한번도 없었지만 지금은 천국에 계실 것을 믿는 어머니 한분은 그렇게 했었다고 내 양심에 부끄럽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그래도 어머니에게 했듯이 예수님 앞에 전부를 주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도 해 보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은혜는 아직까지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해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할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LA, California에 사는 교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동행, 관점, 혼인잔치 3개의 CD를 갖고 있습니다. 외울 정도로 듣고, 또 듣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힘을 얻으며 저의 신앙의 자세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청하오니, 교인들을 통해서라도 목사님 설교집 CD가 있으시면 시골 사는 사람이 청하오니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한인이 3명뿐인 조그만 시골입니다. Tennessey 강이 흐르고 Atlanta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고 한국을 많이 알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LA에 조카가 사는데 목사님 설교시간 방송 땀 온식구가 애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며 은혜받고 자람이 대단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간다고 변명하긴 변명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너희들이 복이다 하고

전화를 나누었지요.

언젠가 CA에 가면 1주일을 목사님 교회 새벽예배, 수요, 성경공부, 주일엄수... 그곳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할 계획이며 그날을 소풍가는, 수학여행 가는 소년의 마음으로 기도 하렵니다.

오늘 10년만에 써보는 편지이기에 문장도 두서없고 잘 쓰던 글씨도 마음에 안들지만 사랑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이 인다. 삼월의 봄바람이다.

내일이라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날밤을 새고 싶은데 잠이라는 친구가 같이 놀자고 조른다. 오늘은 안돼, 이렇게 호통쳐 봤지만 글썽다!

열심히 살자, 인생은 사랑이고 사랑은 인생이니까. 사랑없는 인생이란 죽은 것이다.

가슴에 두근두근, 얼굴엔 복사꽃이 피고 님을 그리며 앉으나 서나 당신만 생각하는 기쁜 내가 되자. 노력하자.

기도하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만날 날까지.
테네시주 사우스 피츠버그에서
Jin S. Chung 올림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 매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신물센터 기독교 통합매장
성경, 영구책, 크리스탈공예품, 양가대, 복직책, Tape, CD
대표 강 병 찬
TEL: (323) 737-7699, (323) 737-4526
FAX: (323) 733-8850
Toll Free: (800) 669-0451
인터넷 쇼핑몰: www.koreamdo.com
E-mail: cbc0191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평신도 간증/ 김지선 집사
(플러튼채플)

나를 변화시킨 '느헤미야 설교' 하나님 은혜 놀라워!

저희 엄마는 성우셨어요. 그래서 그 낭랑한 목소리로 아침 자명종 대신 잠언 말씀을 제 침대에서 늘 읽어주시곤 하셨죠. 가끔 학교 가기 싫다고 때를 부리면, “그래! 가지 말자” 하 시곤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습니 다. 큰 소리로... 저는 바로 일어나 학교에 갈 수 밖에 없었어요. 늘 기도의 힘으로 저를 양육하 셧던 것 같아요.

내 마누라는 예수장이, 예수에 미쳤다는 말쑤 을 많이 하신 아빠는 교회 다니시는 엄마를 많 이 껴박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 가 다니신 교회의 목사님도 “이 분은 구원을 못 받으시겠다” 하시며 발길을 돌리셨는데, 늘 옆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엄마 덕분에 “여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어”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 다. 늘 손해 보셨고, 늘 참으셨습니 다. 늘 “그래... 좋아...” 라는 대답만 하셨습니 다. 이런 엄마 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 고 살아왔어요.

기도하면 좋은 남편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미 국에 와서 앞으로 만날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 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죠. 하나님이 주신 사 람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잘 살 자신이 있 었는데 현실은 반대더라고요. 늘 저에게 참으 라고 하는 남편과, 제 주변 사람과 관계를 어 렵게 만드는 남편 가족간의 문제가 많았어요.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밖에 없 었고요. 그래도 엄마처럼 참고 기도하면 언젠 가는 하나님이 아실 거라 생각했죠.



이렇게 십 년을 살다 보니, 하나님 응답에 환 상 목이 말랐습니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 다. 어떨 땐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 계세요?” 라고 묻기 도 했고, 빠지기도 했어요.

다니고 있던 교회를 옮기고 싶었는데, 다들 저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 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교회를 옮기면 하던 일도 망할 거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참고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한 다며... 뭐가 맞는지 몰랐어요. 교회를 옮기는 일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면, 사탄이 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저를 다 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가출하듯 그 령게 그 교회를 나왔어요.

우연한 기회에 주안예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 일 날뻔했어요! 느헤미야 설교를 안 들었더 라면, 아마 저는 미쳐가고 있었을지도 몰라 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 정도로... 느헤미야 설교를 듣는데,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도 이렇게 기 뻔진 않았을 거예요. 제 중심으로 해석했지 만, 느헤미야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리고 그 때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 작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꼭 하고 싶다고 외 쳤어요. 하나님께 때를 부렸죠. 그리고 시작했 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짓말, 이간질의 단절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고, 사실 확인에 나섰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 다.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하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 기대했어요. 지금까지 거짓과 이간질로 질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 님이 혼을 내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괴롭혔던 사 람들을 혼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만 다 녀지, 예배만 드렸지, 기도만 했지, 제가 말쑤 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알게 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 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 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를 회복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만든다 는 걸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 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우 시고,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집에서 쉽게 만들수 있는 퀘사디아(Fajita Style)는 열량은 낮으나 단백 질,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한 요리로 계절에 관계없이 어떤 모임에서든 부 족함이 없어 보인다.

■ 재료 (2인분)

중간 크기의 빨강과 초록색 피망 각각 ½(씨를 빼 고 젓가락 크기로 채친다). 중간 크기의 양파 ½(가 늘게 채친), 세라노 고추 1(씨 빼고 채친), 얇게 저민 토마토 ½(Slices), 식용유 2작은술, 6 인치 옥수수 토티야 4개, 불지 않는 조리용 스프레이(Nonstick Cooking Spray), 채진 몬테리 잭 치즈(Shredded Monterey Jack Cheese ½ 컵(2 온스), 잘게 썬 쉴 란트로(Cilantro) 1큰술, 식성에 따라 싸워크림(Sour Cream), 쉴란트로(Cilantro), 라임(lime), 구운 닭고 기를 넣어도 좋다.

■ 조리법

1. 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뜨거워지면 채친 피망, 양파, 세라노 고추를 넣고 중간 센불에서 부드 러게 될 때까지(3-5분) 볶은 후 불에서 내린다.
2. 큰 후라이팬에 조리용 스프레 이를 살짝 뿌린 후 토티야를 깔고 치즈, 1의 볶은 야채, 구운 닭고 기, 토마토, 쉴란트로, 치즈의 순 서로 올린 후 다시 토티야로 덮

Fajita Style 퀘사디아
Fajita Style Quesadillas

는다.

3. 2를 중간 불에 치초가 녹고 토티야가 연 한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한면예 4-5 분씩) 굽는다.

4. 조리된 퀘사디아를 4 쪽으로 잘라 준비한 Sour Cream, Ci-



lantro, Lime 조각과 함께 상에 올린다.

5. Garden Salad 와 함께 잘 어 울리는 요리다. 박창신 기자



■ 체육국/ 축구, 야구, 배드민턴 시즌 오픈

"봄도 왔는데, 운동하러 나오세요"

주안예교회 체육국 야구팀과 축구팀이 봄기운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Glendale Sports Complex 에서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야구팀 모임이, 그리고 주일 저녁 7시 30분에는 축구팀 모임이 있는데 주로 4, 50대로 이루어진 주안예교회 야구, 축구 선수들은 3, 40대로 이루어진 다른 팀과 겨루어서도 대등한 실력 이상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유니폼까지 맞춰 입은 주안예교회 야구팀과 축구팀은 어느 운동팀도 부러워 할 화기에애한 분위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겠다는 믿음 아래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오성태 체육국장은 운동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했습니다.

최형선 축구팀장은 요즘 쌀쌀한 날씨인데도 빠짐 없이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열정아래 4월 3일부터는 우리 주안에 축구팀이 한 시간 더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6:30분에 모여 우리팀끼리 먼저 몸을 풀고 8시부터는 다른팀들과 시합을 할 예정이므로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을 당부 했습니다.

또 야구팀장 김진경 집사는 지금은 12명정도 나오지만 한때는 40명까지 참여했던 만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빨리 합류해서 제대로 된 야구팀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팀장 김진흥 집사도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회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커뮤니티분들과 화합하는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주안예교회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 참가문의: 축구팀장 최형선 집사 818-269-7072/ 야구팀장 김진경 집사 818-631-6575/ 배드민턴팀장 김진흥 집사 310-780-6080

■ 알림: 이달 지면사정으로 주안예성경퍼즐 실지 못했습니다. 지난호 당첨자와 정답, 새 문제는 4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주안에” 2016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운, 조종대, 채은영,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솔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갯세마네 그 기도

The Prayer of Geth-Sem'a-ne

무릎 꿇은, 피멍든 눈물
땅을 붉히며
향기를 발한다.
"아버지여..."

침 뱉고 버려진
가시관의 영광
엇갈린 십자가의 발걸음
"아버지여..."

눈시울 적시운
에덴동산엔
영광이 영광으로
빛을 발한다.
"아버지여..."

갯세마네 그 기도
들려오는
이 아침에

Kneeled, blood stained tears
Embarassed the earth
Then shine his glory
"Father..."
Spit and thrown by sinners
Scar of thorned crown
Shame of waves
Along the step of the cross
"Father..."
Breath of Thruth
Cutting thru the sin of Eden
Kneeled baby lamb into Glory
Grace and Holy Grace.
"Father..."
The prayer of Geth-sem'a-ne
Echo of True Love Prayer
In this gifted morning

이정은 목사

교/우/비/즈/니/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15, 2부 11:45

영성
집회

수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